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1. 6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**美법원, 미시간주지사 납치 음모 주범에 '重型' 선고**
 - '22.12.28 美미시간州 지법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반발, 미시간 주지사를 납치하고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해 내전을 일으키려는 음모를 꾸민 극우 민병대원 「애덤 폭스」(39)에게 징역 16년 선고
 - * 同人은 FBI의 함정수사에 걸려들었을 뿐이고 자신은 주동자가 아니라고 주장
- **美, 아마존 채팅앱 '테러' 등 범죄악용 우려에 운영 중단**
 - 1.2 외신은 美전자상거래기업 「아마존」이 자사 암호화 채팅 플랫폼 「위커미(Wickr Me)」*가 테러조직·마약상·아동성범죄자 등에 의해 악용되는 사실을 고려, 올해 안에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보도
 - * 해당 채팅앱은 성명·생년월일·전화번호 등 '식별가능정보' 없이 가입이 가능하여 법집행기관의 추적을 회피할 수 있어, ISIS 조직원 모집 등 범죄에 악용
- **美검찰, 경찰관 흉기공격 10대 이슬람 극단주의자 '살인미수' 기소**
 - 1.3 美검찰은 지난 31일 뉴욕 신년전야행사에서 대형 칼(마체테)로 경찰관 3명을 공격한 이슬람 극단주의자 「트레버 빅포드」*(19)를 각각 2건의 살인미수와 폭행미수 혐의로 기소
 - * 同人은 중국 신장 위구르족과 미얀마 로힝야족 탄압 등에 대한 분노로 범행 기도 주장
- **멕시코, 교도소 '무장 괴한' 습격으로 최소 14명 사망**
 - 1.2 외신은 지난 1일 새벽 멕시코 북부 치와와州 교도소에 무장 괴한들이 습격해 총기를 난사하고, 일부 재소자들이 불을 지르는 등 교도관과 충돌 과정에서 교도관·수감자 등 최소 14명이 사망하였다고 보도
 - * 해당 교도소는 지난 '09년 유혈 충돌로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, 지난해 8월에는 범죄 조직 간 충돌로 인해 수감자 3명 사망

유럽

○ 英정부, '이란 혁명수비대'(IRGC) 테러단체 지정 추진

- 1.2 英정부는 이란 정예軍인 혁명수비대(IRGC)가 지난해 자국내에서 10건의 납치·살해 음모를 꾸민 사실을 밝혀냈으며, 자국 「테러법」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들이 테러단체 지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발표

* 英정부는 현재까지 「테러법」(Terrorism Act 2000)에 따라 78개의 테러단체 지정

아·태평양

○ 파키스탄, '이슬라마바드 자폭 테러' 연루 용의자 5명 체포

- '22.12.28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지난 23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(사망 1·부상 10) 연루 용의자 5명을 체포했으며, '파키스탄 탈레반'(TTP)이 이번 사건의 배후임을 인정했다고 발표

* 사건 직후 미국·한국 등 파키스탄 주재 각국 대사관은 체류 자국민에게 여행경보 발령

○ ISIS, 아프간 카불 軍비행장 '폭탄테러' 자행

- 1.3 외신은 ISIS가 아프간 수도 카불의 軍비행장 입구에서 폭탄 공격을 자행해 10명 이상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으며, 사건 직후 ISIS는 자체 선전 매체를 통해 同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

* ISIS는 미국과 시아파 등을 대하는 탈레반의 태도가 온건하다고 비난, 지난해 8월 탈레반 再집권 후 아프간 곳곳에서 테러를 자행

아프리카

○ 알샤바브, 소말리아 차량폭탄 테러(사망 35) 배후 자처

- 1.4 외신은 소말리아 중부 히란지역에서 두 차례의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해 민간인 등 35명이 사망하였으며, 사건 직후 이슬람 무장단체 '알샤바브'가 성명을 통해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

'11년 이집트 콥트교인 겨냥 자살 폭탄 테러

- '11.1.1(토) 이집트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市에 있는 알 키디신 콥트교회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23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부상
 - * 이집트 토착 기독교 세력인 동방정교 소속 콥트교 신자들이 새해맞이 예배를 끝내고 교회를 나오는 순간 출입문 앞에서 폭발
 - ** 세계적으로 콥트교인은 약 2천만명이며, 대다수(1천5백~1천8백만명)가 이집트에 거주
- 同테러는 '00년 코세지역 콥트교인 20여명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 이후 이집트內 기독교인 대상 최악의 테러로 기록
- 내무장관은 同테러를 가자지구에 본부를 둔 하마스 연계 이슬람 세력이 자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후, 테러범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,
 - 수천명의 콥트교인들은 외무부와 국영TV 건물 등에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여 경찰·보안군과 충돌
- 국제사회는 同테러를 '무고한 콥트교인에 대한 공격'으로 지칭, 어떠한 명분도 성립할 수 없으며 종교적 자유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성명 발표

< 하마스(HAMAS) >

- (결성) 이집트 '무슬림 형제단'의 팔레스타인 지부소속 강경세력들이 1987년 제1차 '인티파다'(對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민중봉기)를 계기로 결성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97.10), 영국('01.3), 캐나다('02.11)
- (연계세력)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, 인민저항위원회(PRC)
- (핵심인물) 이스마일 하니예(최고 지도자)
- (활동지역) 팔레스타인 가자, 서안지구 및 레바논지역 팔레스타인 난민캠프
- (활동수법) 對이스라엘 군·민 대상 폭탄테러, 총격, 로켓공격 및 납치
- (주요테러) '08.12~'09.1 이스라엘軍과 하마스간 '가자전쟁' 발발 800여명 사망
 '12.11 텔아비브에서 PIJ조직원과 버스폭탄테러 자행, 29명 부상
 '19.5 이스라엘 겨냥 미사일 700여발 발사, 주민 4명 사망·80여명 부상